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친환경' 전기차에서 나오는 '반환경' 폐배터리 어쩌나? 한겨레
- 무림, '펄프월드' 새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헤럴드경제
- 지역난방공사 1,6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ESG 경영 속도 뉴시스
- 대한항공, 광주은행 ESG채권 1등급...ESG평가 2·3등급은 없네? 한국경제
- 국책은행 ESG 경영 '쟁걸음'...탄소↓ 녹색지원↑ 뉴데일리
- 롯데케미칼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에 4조4천억원 투자" 연합뉴스
- 석유공사·포스코인터·SK이노, 페루 광구 철수로 '백지' 벌금 청구서 받아... "아마존 오염시켜" 조선비즈
- 배출조작 여수산단 대기업 총수들 '국감장'에 서나 헤럴드경제
- 脫탄소가 미래 먹거리... 기업 '그린 경영'에 사활 걸다 문화일보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코웰퍼션, 3400억원에 업계 4위 '로텐택배' 인수 이데일리
- 카카오T, 택배사업도 시동...한진택배와 손 잡았다 중앙일보
- 토종 1세대 이커머스 '인터파크' 매물로 나왔다 한국경제
- [HMM/이사회 모니터]장기재직 사외이사 축소에도 '절반' 독립성 더벨
- 손정의, 아놀자에 2조 썼다...'데카콘·美상장' 쿠팡모델 노린다 한국경제
- 네이버 노조가 국민연금에 요구한 '최인혁 해임안', 가능성은 뉴시스
- 은행들 웃돈까지 주며 ESG채권 발행 헤럴드경제
- 암호화폐 보유 공시, 71개 그룹 중 카카오·넥슨만 했다 중앙일보
- [분할상장의 역설②] 그룹내 차별 우려 vs 대규모 투자 위해...SK·카카오 등 물적분할 딜레마 아주경제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희망퇴직 OCI, 젊은 직원이 더 많이 나갔다 데이터뉴스
- 여성 CEO 7인 "공정성 지켜지면, 조직도 여성도 성공한다" 중앙일보
- 다시 불 붙는 택배 갈등...CJ대한통운 '부당하고' 논란 경기일보
- 삼성물산, 현장 '안전강화비' 대폭 상향...100% 선집행 뉴시스
- 극히 미미한 은행권 女 리더...ESG 차원 육성의 명과 암 파이낸셜뉴스
- ESG 외친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 예산 400억 감소 조선비즈
- 캠프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또 불발 연합뉴스
- "졸속 매각 인정 못해" ...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뉴시스
- 이커머스 '수수료 낮추기' 경쟁... "위메프·네이버 잇는 다음 주자는?" 뉴스1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EU '공격적 탄소 감축안' 베일 벗었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車 판매 금지 추진" 서울경제
- "한국 기업 중대재해 의결권 행사할 것.. ESG는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 한국경제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5%...전년비 6%p 증가 조선일보
- "ESG는 만병통치약 아냐...단기 수익률 기대는 버려야" 머니투데이
- 거래소, '저탄소' 성적 반영한 기후변화지수 3종 발표 연합뉴스
- 환경에서 투자로...쑥쑥 크는 탄소배출권 시장 헤럴드경제
- EU 택소노미는 사회 분야 포함하는 ESG 투자 지침 한국경제
- 세계은행 때린 블랙록 "ESG 투자받는 개도국에도 책임을" 연합뉴스
- 군인공제회 ESG 경영 선포... "ESG 지표 낮은 기업에 투자 안해" 뉴시스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공개정보기반 ESG 평가기관의 평가체계 비교분석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07.15

E

- 국내의 다수의 ESG 평가기관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평가 방법이나 기준, 점수 부여 체계 등이 상이함
- ESG 평가기관 중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지수 및 데이터사업자에는 MSCI, FTSE, Russell, Refinitiv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가 대표적임
- MSCI의 경우 특정 산업이 갖는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하여 기업이 해당 요인에 노출된 정도와 그에 대한 기업의 관리 수준을 구분하여 ESG를 평가함. 따라서 MSCI의 평가결과는 특정 기업이 속한 산업과 연관된 중대한 외부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기업의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해석이 가능함
- FTSE Russell의 ESG 평가는 MSCI, Refinitiv와 달리 기업 운영상의 관리 성과만을 평가함. 위험 요인에 노출된 정도를 가중치로, 관리 수준을 평가점수로 두고 ESG 점수를 도출함. 따라서 FTSE Russell의 ESG 평가결과는 기회 요인은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ESG 위험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수준을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판단할 수 있음
- Refinitiv의 ESG 평가점수는 같은 산업 내 순위 비교를 통한 '백분위 점수'에 기반하므로 네 기관 중 상대평가의 성격이 가장 강함. 따라서 동종업계 내에서 ESG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자 한다면, Refinitiv의 ESG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확인하는 것이 유의미함
- KCGS의 ESG 평가는 개별기업의 ESG 관리 체계와 성과에 대하여 부문별 특검률을 가점 또는 감점한 결과를 나타냄. 기업집단과 같은 국내 기업의 특성과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지배구조 평가가 특히 고도화되어 있음. KCGS의 ESG 평가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와 코스닥 상장사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결과를 KRX의 사회책임투자 지수를 구성하는데 사용됨

국내 PEF의 ESG 투자 확산을 위한 고려 사항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1.07.12

S

- 현재 4,000여개의 투자 유관기관이 UN PRI에 서명하였으며, 이들은 자산운용사(74%), 자산보유자(15%), 서비스 제공 기관(11%)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0년말 기준 3,000여개의 자산운용사 중 PE 운용사는 430여개로 약 14%임.
- 해외 PE는 자본시장의 다른 투자 방식과 마찬가지로 ESG 확산 초기 위험요소 파악을 위해 중점을 두었던 체크리스트 중심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방식으로부터 점차 기회요소를 파악하는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 방식과 ESG 통합(ESG integration)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
- 피투자기업 규모와 투자방식에서 해외 PE 시장과 상이한 국내 PEF 시장의 특성은 ESG 투자 확산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PEF의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 중 PEF 투자가 가능한 주요 기업은 국내의 제조업 공급망에 속해 있어 생존 또는 평판 위험 관리를 위해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반면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ESG 의무공시가 도입되지 않아 ESG 관련 정보가 부족하며 ESG 경영을 구현할 전담인력이 부족함
- 또한 최근 국내 PEF 시장에서 바이아웃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PEF 투자의 상당 비중은 소수 지분투자로서 피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 ESG 관여에 본질적 제약이 따를 수 있음. 특히, 소수 지분 투자에 ESG 투자 초기 단계에 흔히 활용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사용할 경우 모집한 자금 규모 대비 충분한 투자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영국의 회계감사 및 기업지배구조 감독체계 개혁 추진 현황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21.07.12

G

- 영국 정부는 2021년 3월 발간한 백서를 통해 소규모 감사법인을 활용한 공유 감사 등 Big4 감사법인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감사인 및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 이와 같은 개혁은 기업의 회계부정과 감사 실패를 줄이기 위해 Big4 감사법인 중심의 독점적인 회계감사시장을 개선하고 기업 내부의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소규모 감사법인과 Big4 감사법인의 공유감사는 감사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감사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내부 감독 강화와 어우러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국의 Big4 감사법인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회계감사시장에 큰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Big4 감사법인의 시장독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혁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소규모 감사법인의 활용 확대는 대규모 우량 기업의 회계 복잡성과 이에 대처하는 역량 부족으로 인한 감사 리스크 우려가 있음또한 공유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감사 업무의 배분 및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증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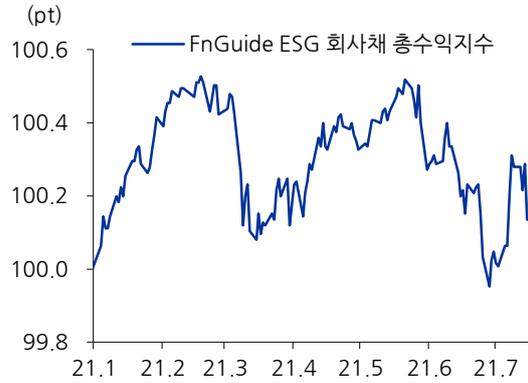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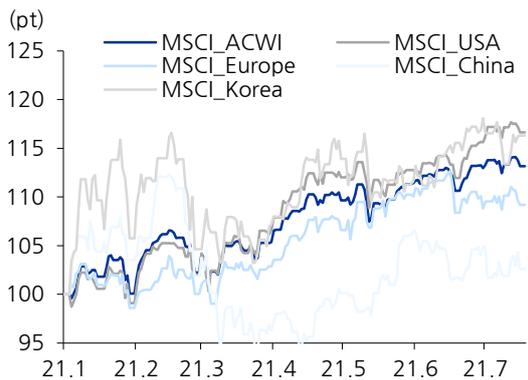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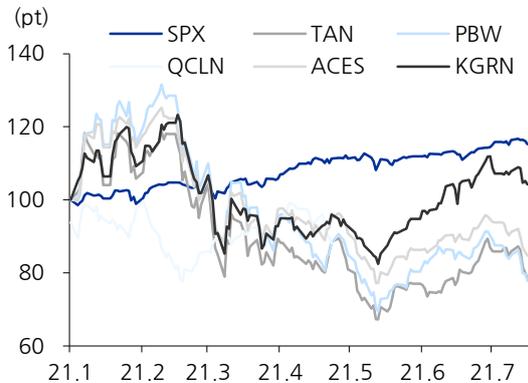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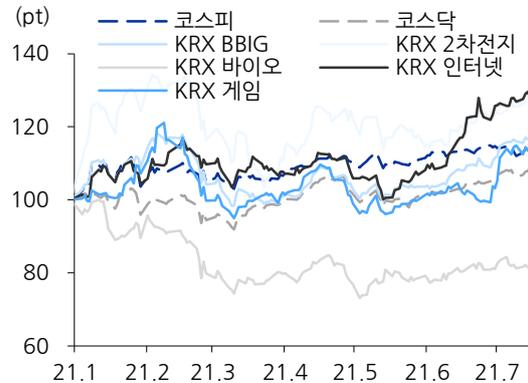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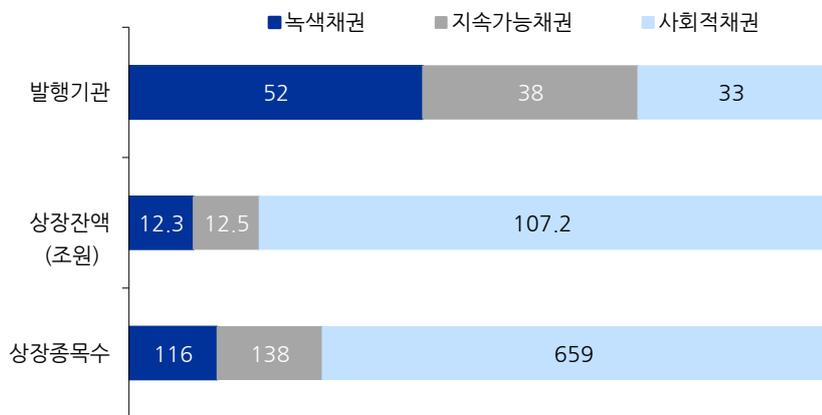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5(1-1)(사)	2021/07/15	1.12200	166,4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5(1-2)(사)	2021/07/15	1.44300	19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5(1-3)(사)	2021/07/15	1.62300	2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5(1-4)(사)	2021/07/15	1.93800	51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5(1-5)(사)	2021/07/15	2.20800	25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5(1-6)(사)	2021/07/15	2.36900	19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5(1-7)(사)	2021/07/15	2.50100	11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5(1-8)(사)	2021/07/15	2.41400	4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5(1-9)(사)	2021/07/15	2.43500	10,000
녹색채권	한국지역난방공사 46-1(녹)	2021/07/13	1.39200	60,000
녹색채권	한국지역난방공사 46-2(녹)	2021/07/13	1.60600	10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26-1(지)	2021/07/13	1.50000	1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26-2(지)	2021/07/13	1.77100	2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26-3(지)	2021/07/13	1.77100	4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26-4(지)	2021/07/13	1.83200	10,000
지속가능채권	JB 우리캐피탈 426-5(지)	2021/07/13	2.04600	2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35(사)	2021/07/12	1.82100	160,000
지속가능채권	광주은행 2021-7 이(변)1 갑 9(지)	2021/07/12	0.93000	50,000
지속가능채권	광주은행 2021-07 이 2 갑-09(지)	2021/07/12	1.56000	5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2%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8%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6.30 기준)